

이지바이오 (353810. KQ)

관세협상 이면에 글로벌 축산 공급망 재편 있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10,000 원(유지)
현재주가	5,630 원(07/29)
시가총액	186.3 십억원

미드/스몰캡 허준서_02)368-6175_pos03066@eugenefn.com

- 2Q25 매출액 1,121억원(+11% yoy), 영업이익 102억원(+ 20% yoy) 예상, 기존추정치 유지, 2분기부터 리텐션 보너스 지급 종료 및 기존 적자였던 Pathway의 구조조정 효과로 평년 대비 영업이익 개선 전망
-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서울 이외에도 주목할 부분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일본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명시, 식량안보 관점에서 폐쇄적인 시장성 고려했을 때 개방의 의의 커
- 과거 미국의 축산물 사육두수 증가는 축종의 수출 증가세와 상관관계 깊어, 중국과의 상호관세 갈등으로 4월과 5월 대 중국 수출 데이터는 큰 폭 하락했으나, 6월까지 사육두수 견조하게 유지된 점 고려 일회성 노이즈로 판단
- 장기추세에 주목 필요, 중국 내 모든 감축과 유럽의 축산업 부진, 개도국 축산물 시장 개방 등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 미국의 글로벌 축산물 공급역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해당시장 직접 참여하는 이지바이오 직수혜 예상
- 미국의 농/축산업 규모와 자체계열화 수준은 압도적, 다변화된 밸류체인 내 소규모 M&A 기회도 존재
- Devenish 인수는 미국시장 진입의 시작점이었으며 이지홀딩스가 인수한 미국 사료업체인 FMC와 DFS와의 시너지 및 향후 글로벌 공급국 지위를 견고히 할 미국 축산시장의 성장세 따른 수혜가 이지바이오의 가장 큰 성장동력
- 점점 뚜렷해지는 성장 청사진에도 12MF PER은 6배에 불과,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만원 유지

주가(원,7/29)	5,630
시가총액(십억원)	186

발행주식수	33,082천주
52주 최고가	5,940원
최저가	3,275원
52주 일간 Beta	-0.10
60일 일평균거래대금	11억원
외국인 지분율	5.3%
배당수익률(2024F)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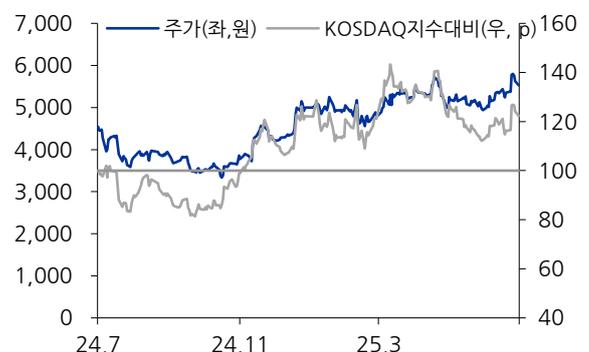
주주구성	
이지홀딩스 (외 4인)	51.5%
자사주신탁 (외 1인)	3.3%

주가상승(%)	1M	6M	12M
상대기준	11.2	2.2	24.4
절대기준	14.1	12.6	24.0

(원, 십억원)	현재	직전	변동
투자의견	BUY	BUY	-
목표주가	10,000	10,000	-
영업이익(25)	40.0	40.1	▼
영업이익(26)	44.8	44.7	▲

12월 결산(십억원)	2023A	2024A	2025E	2026E
매출액	165.4	384.3	476.0	488.2
영업이익	20.6	32.4	40.0	44.8
세전손익	20.1	26.4	35.2	41.8
당기순이익	16.1	19.9	27.2	33.0
EPS(원)	455	573	784	950
증감률(%)	70.2	26.1	36.8	21.1
PER(배)	8.0	7.3	7.2	5.9
ROE(%)	27.6	26.7	29.4	29.9
PBR(배)	2.0	1.7	2.0	1.6
EV/EBITDA(배)	5.6	5.8	4.2	3.8

자료: 유진투자증권



전사적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 실적

2Q25 매출액 1,121 억원, 영업이익 102 억원 전망

2025년 2분기 매출액 1,121 억원, 영업이익 102 억원을 전망한다. 각각 전년비 11%, 20% 성장할 전망이다. 인수효과는 지난 1 분기를 끝으로 종료되서 탐라인 성장폭은 둔화됐지만 Devenish 직원들에게 지급하던 리텐션 보너스의 지급 종료와 적자법인이었던 Pathway 구조조정 완료가 영업이익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1. 이지바이오 분기 실적 전망(연결)

(십억원)	1Q24A	2Q24A	3Q24A	4Q24A	1Q25A	2Q25F	3Q25F	4Q25F
매출액	59.4	100.9	106.4	117.6	116.9	112.1	118.9	128.1
YoY(%)	50.1	148.8	149.4	176.2	96.8	11.1	11.8	8.9
자돈사료	20.1	26.0	25.2	31.7	25.6	30.4	31.6	30.1
사료첨가제	45.0	81.0	87.0	92.8	96.1	87.6	93.6	104.7
연결조정	(5.7)	(6.1)	(5.8)	(6.8)	(4.7)	(5.9)	(6.3)	(6.7)
매출원가	40.9	73.0	77.0	94.9	90.2	79.5	83.1	91.9
매출총이익	18.5	27.9	29.4	22.7	26.7	32.6	35.8	36.1
판관비	12.2	19.5	20.5	13.9	17.6	22.5	25.3	25.9
영업이익	6.3	8.4	8.9	8.7	9.1	10.2	10.5	10.3
YoY(%)	31.9	64.6	53.5	77.1	44.6	20.4	17.6	17.7
OPM(%)	10.6	8.4	8.4	7.4	7.8	9.1	8.8	8.0
영업외손익	(0.1)	(1.9)	(1.0)	(3.1)	(1.2)	(1.5)	(1.2)	(0.9)
세전이익	6.2	6.5	8.0	5.6	7.9	8.7	9.3	9.4
법인세비용	1.5	2.2	1.7	1.1	2.2	1.8	2.1	1.9
당기순이익	4.7	4.3	6.3	4.5	5.8	6.8	7.2	7.4

자료: 이지바이오, 유진투자증권

2025 년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760 억원(+24% yoy)과 400 억원(+23.6% yoy)를 예상한다. 1 분기까지 적용된 인수효과와 이후 수익성 개선 흐름으로 연간 실적은 견조할 전망이다. 하지만 하반기 접어든 현재 두가지 이벤트 모두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향후 2026 년과 2027 년의 장기 실적성장세를 견인할 시장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표 2. 이지바이오 연간 실적(연결)

(십억원)	2022A	2023A	2024A	2025F	2026F
매출액	155.6	165.4	384.3	476.0	488.2
YoY(%)	20.2	6.3	132.4	23.9	2.6
자돈사료	79.1	81.9	103.0	117.8	115.9
사료첨가제	94.4	109.3	305.7	381.9	398.0
연결조정	(18.0)	(25.8)	(24.3)	(23.6)	(25.7)
매출원가	108.3	113.4	285.9	344.7	351.9
매출총이익	47.3	52.0	98.5	131.3	136.3
판관비	31.1	31.4	66.1	91.3	91.5
영업이익	16.2	20.6	32.4	40.0	44.8
YoY(%)	(3.7)	27.7	56.9	23.6	12.0
OPM(%)	10.4	12.5	8.4	8.4	9.2
영업외손익	(4.2)	(0.6)	(6.0)	(4.8)	(2.9)
세전이익	12.0	20.1	26.4	35.3	41.9
법인세비용	2.6	4.0	6.5	8.0	8.8
당기순이익	9.3	16.1	19.9	27.3	33.1

자료: 이지바이오, 유진투자증권

지정학적 이슈가 심화되는 흐름속에서 지난번 보고서에 언급한대로 이지바이오가 가진 BM 은 무적이다. 미국 외 시장은 비교우위를 가진 생산시설에서 대응하고 미국 시장은 미국 현지에서 대응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상대국들의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꾸준히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향후 미국 축산시장의 전망은 더욱 긍정적으로 보인다.**

글로벌 축산 공급 밸류체인 재편 중

트럼프, “관세 낮추고 싶으면 농축산물 시장 열어라”

7월 2일 베트남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기존 46%의 상호관세율을 20%까지 낮춘 바 있다. 대가는 '시장개방', 특히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완전 개방과 구매 양해각서 체결이 명시됐다. 베트남은 비관세 장벽으로 높은 수준의 위생과 검역기준을 요구해왔으며 MFN(최혜국 대우)관세를 최대 25% 적용하고 있었다.

7월 15일 체결된 인도네시아 상호관세 협정도 마찬가지로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완전개방을 전제로 39%의 상호관세율을 19%로 협상했으며 이어 7월 23일 있었던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일본의 미국내 대규모투자자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전제로 15%의 상호관세율이 확정됐다.

도표 3. 미국의 상호관세 협상국들의 협상 전후 관세율과 농/축산물 개방여부

국가	구분	기존	협상 후
베트남	상호관세율	46%	20%
	농/축산물 개방여부	- 미국산 축산물에 MFN(최혜국대우)관세 25% 적용 - 비관세장벽으로 까다로운 위생/검역 검사	미국산 농/축산물 완전 개방
인도네시아	상호관세율	39%	19%
	농/축산물 개방여부	-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허가제와 검역 - FDA 인증 미인정, 자체기준 요구 등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99% 폐지
일본	상호관세율	25%	15%
	농/축산물 개방여부	- 미국산소고기 월령제한 및 검역 요구 등 비관세 장벽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자료: 언론종합,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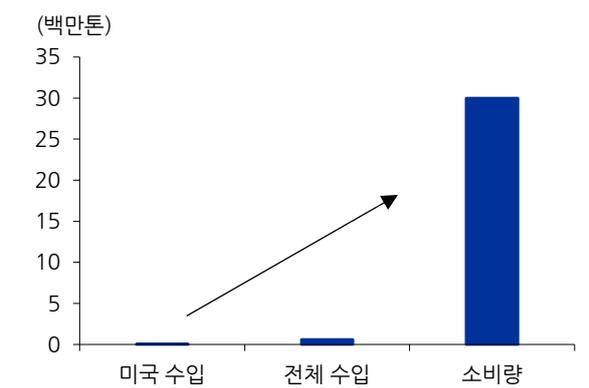
일본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미국 수출량 기준 4 번째로 많이 소비하고 있고 소고기는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돼지)과 인도네시아(소)는 아직 미국산 축산물을 유의미하게 수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협상으로 미국의 글로벌 축산물이 침투할 수 있는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농축산물은 식량안보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이 적용되는 품목이기에 기존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수입장벽을 세우던 국가들의 개방은 의미가 크다.

특히 베트남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연간 300 만톤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미국의 연간 수출 중량과 유사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크다. 이 중 수입 중량은 4 만톤에 불과했는데 이번 관세 협정으로 해당 시장에서 자유경쟁이 가능해지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국교인 이슬람교 영향으로 소고기의 소비량이 높다. 연간 70 만톤 수준의 소고기를 소비하며 40 만톤 정도를 자급하고 있다. 미국의 연간 소고기 수출량은 130 만톤 수준이며 인도네시아가 수입하는 미국산 소고기는 연간 1 만 7 천톤 수준에 불과하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폐지됨으로써 최소 30 만톤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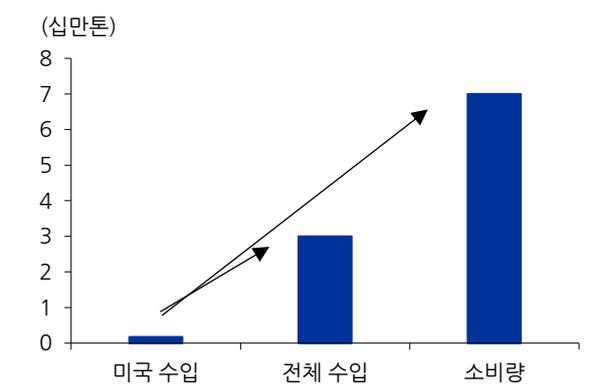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는 미국 농축산물의 가장 강력한 세일즈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도표 4. 베트남 돼지고기 소비량과 공급밸런스



자료: VITC, 유진투자증권

도표 5. 인도네시아 소고기 소비량과 공급밸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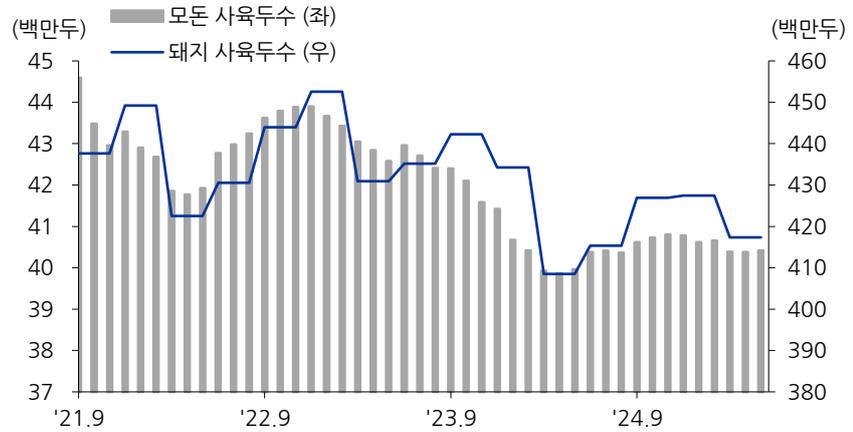
자료: , 유진투자증권

질병청정 축산 공급국 미국의 글로벌 지위 상승 조짐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ASF 가 재발병하고 있다. 중국은 높은 돼지고기 수요에 비해서 질병관리 등의 축산 선진화가 이뤄지지 않아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농장 내 ASF 발병 시 증상 있는 돼지들에 한해서만 살처분하고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돼지들은 빠르게 도축해 상품화한다. 단기적으로 시장에 물량이 빠르게 풀리기 때문에 돈가가 하락하고 최근 이를 이를 잡기 위한 구조조정 측면으로 모돈을 100 만마리 감축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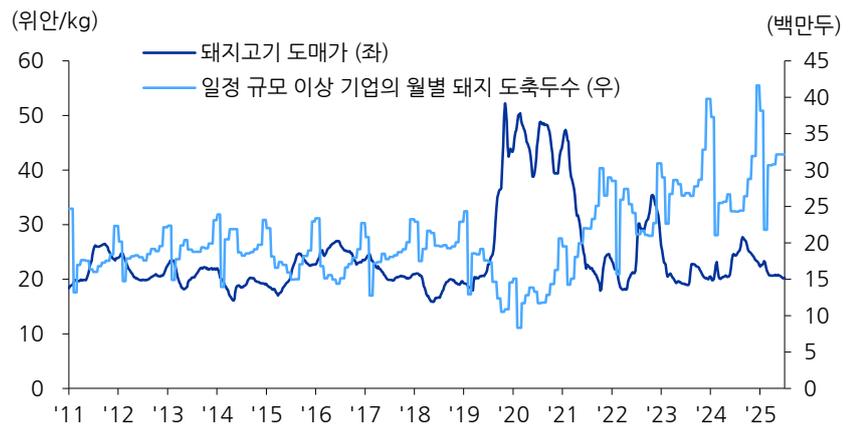
과거 중국의 모돈 감축에 따른 실제 사육두수 증감 히스토리 분석 결과 모돈 증감과 자돈증감의 상관계수는 0.8 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중국 내 돼지 사육두수의 규모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동물복지와 환경 이슈로 장기간 침체를 겪고있는 유럽의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미국이 해당 공급의 공백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관세협상이라는 지정학적 이슈로 수요가 창출되는 국면이라 판단한다. 이미 미국은 국내 수요인 900 만톤을 상회하는 1,200 만톤 이상을 매년 생산하고 있으며 곡물부터 식육까지 축산업 밸류체인의 수직계열화가 가장 잘 돼있는 선진 축산시장이다. 수출경쟁력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미국의 가축 사육두수는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도표 6. 중국 모돈과 전체 돼지 사육두수



자료: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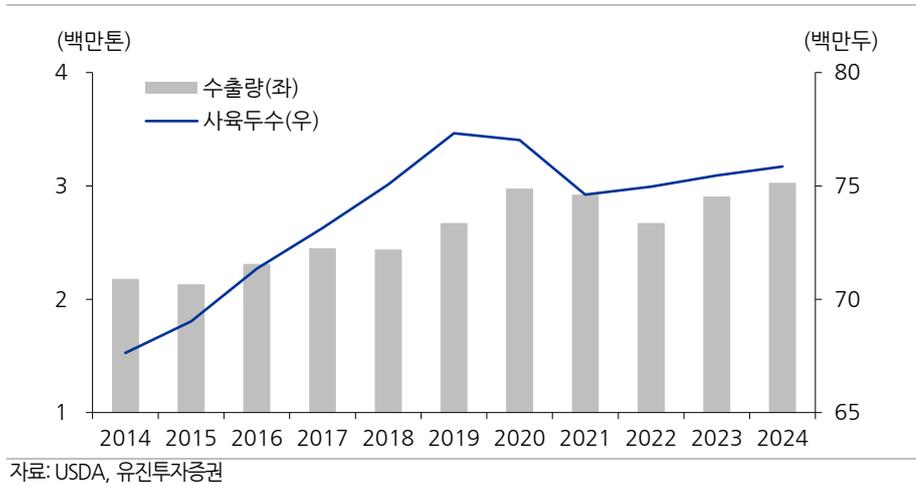
도표 7. 중국, 도축 수 증가에 따른 돈가 하락



자료: 유진투자증권

이지바이오는 북미 중심의 글로벌 축산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국내 유일 상장사다. 북미 축산 밸류체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이슈가 강제로 만들어낸 수요에 따라 향후 공급량도 증가할 전망이며 전방시장의 호조로 돼지 및 소 사육두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모회사인 이지홀딩스 산하에는 배합사료 업체인 FMC와 DFS도 있어 미국 내 밸류체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다.

도표 8. 미국 돼지고기 수출량과 사육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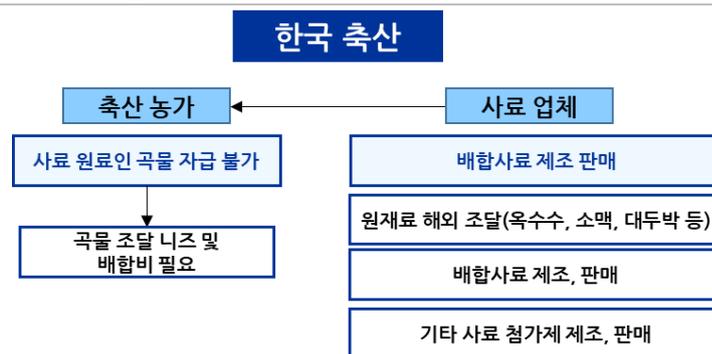


사료 비즈니스의 양과 질이 다른 미국 시장

곡물부터 자급되는 대규모 계열화 시장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기회

미국의 축산업은 곡물농장이 많은 아이오와(돼지)와 텍사스(소)를 중심으로 발달해있다. 두 지역 모두 곡창지대로 농가는 사료의 원재료가 되는 곡물을 지근거리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국내 축산업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이다. 사료용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해야하는 국내 축산업은 해외 조달능력이 있는 사료업체들이 밸류체인을 과점하고 있다. 원재료의 수급부터 배합비 개발, 사료 생산의 계열화가 이뤄진 기업형 업체들의 과점구조다.

도표 9. 한국 축산, 농가의 원재료 자급 불가로 사료 업체 과점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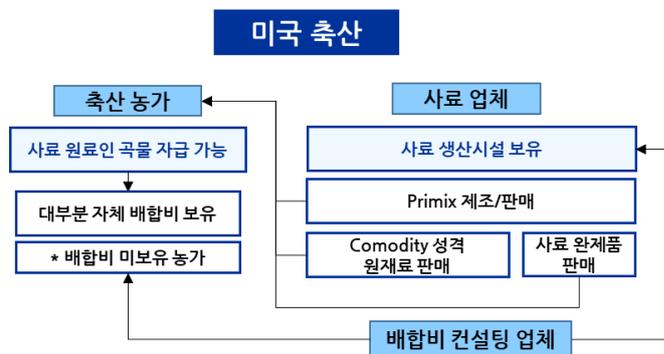


* 해외 시장 대상 원재료 수급 가능한 특정 기업형 업체들의 사료 밸류체인 과점 구조
 * 원재료 해외 의존도 높으며 농가의 납품 이후 도축과 육가공 유통과정 복잡

자료: 유진투자증권

미국은 농가마다 적절한 배합비를 보유하고 있다. 농가들의 자급률이 높으니 사료업체들의 비즈니스모델도 다양각색이다. 최적의 배합비를 위한 프리믹스를 공급하는 비즈니스부터, 특정 영양제인 코모디티(라이신, 비타민 A)공급, 사료 완제품 제조, 심지어는 제조공장 없이 레시피만을 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배합비를 컨설팅해주는 업체도 존재한다.

도표 10. 미국 축산, 사료 비즈니스 내 다양한 플레이어 존재



* 원재료 자급 가능해 사료 밸류체인 다변화 되었으며 소규모 플레이어 다수 존재
 * 농가의 납품 이후 도축과 육가공 까지 계열화(과점) 되어있음

자료: 유진투자증권

1 차 산업인 축산업은 긴 역사만큼이나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데 진입장벽이 큰 비즈니스다. 외형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선 M&A 가 필수적이다. 이지바이오는 이미 작년 Devenish 인수로 큰 폭의 외형성장을 이뤘다. 모범적인 사례다. 지난 인수를 바탕으로 미국 법인인 Devnish 도 밸류체인 내 다양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M&A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금력을 확보했다. 앞서 언급한 미국 축산업의 구조적 호황속에서 신규 업체를 인수할 수 있는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의심할 게 없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만원 유지

목표주가 1만원과 투자의견 BUY 를 유지한다. 최초 발간일 이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목표주가 1만원은 연결 법인의 회계적인 기업가치를 단순 합산한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주가는 12MF EPS 기준 PER 6 배에 불과하다. 인수 후 작년 분기별 흐름을 거치며 회계적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에 인수 사실만으로 즉각적인 기업가치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모회사인 이지홀딩스의 배합사로 계열사 FMC 와 DFS 까지 고려했을 때 이지 그룹의 북미 축산시장 진출 청사진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이지바이오는 그룹사의 최선단에서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지바이오는 Devenish 인수 전에도 10 배 이상의 멀티플을 받아왔다. 보다 성장성이 큰 미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고 관련 청사진이 더욱 뚜렷해지는 국면에 디스카운트를 받을 이유가 없다. 글로벌 사료 첨가제 업체들은 최소 15 배에서 20 배의 멀티플을 부여받고 있으며 국내 시장 상장이라는 디스카운트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10 배의 멀티플은 최소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미국 축산시장의 구조적, 지정학적 성장에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상장사라는 점에 주목하자.

이지바이오(353810.KQ)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단위:십억원)	2022A	2023A	2024A	2025F	2026F
자산총계	157.8	172.0	360.0	327.8	353.3
유동자산	107.3	119.6	219.0	201.1	238.2
현금성자산	41.4	69.8	120.4	90.0	126.8
매출채권	35.2	21.8	41.9	44.8	44.9
재고자산	28.8	25.9	53.6	63.1	63.3
비유동자산	50.5	52.5	141.0	126.7	115.1
투자자산	9.1	11.2	10.4	15.0	15.6
유형자산	34.9	34.4	64.6	48.0	37.8
기타	6.6	6.9	66.1	63.7	61.6
부채총계	105.0	105.9	271.2	230.0	230.7
유동부채	85.1	71.9	127.8	133.6	133.9
매입채무	15.6	15.3	43.3	51.6	51.7
유동성이자부채	65.0	51.8	72.2	69.7	69.7
기타	4.4	4.8	12.2	12.3	12.5
비유동부채	19.9	33.9	143.5	96.4	96.8
비유동이자부채	17.2	30.5	137.4	85.8	85.8
기타	2.7	3.5	6.0	10.6	11.0
자본총계	52.8	66.2	88.8	97.8	122.6
지배지분	50.0	62.8	84.0	92.8	117.6
자본금	3.4	3.4	3.4	3.4	3.4
자본잉여금	21.4	21.5	14.5	14.5	14.5
이익잉여금	26.2	38.6	61.3	76.5	101.3
기타	(1.1)	(0.7)	4.7	(1.6)	(1.6)
비지배지분	2.8	3.4	4.8	5.0	5.0
자본총계	52.8	66.2	88.8	97.8	122.6
총차입금	82.2	82.3	209.6	155.5	155.5
순차입금	40.8	12.5	89.3	65.5	28.7

현금흐름표

(단위:십억원)	2022A	2023A	2024A	2025F	2026F
영업현금	(8.1)	33.7	25.8	24.0	43.4
당기순이익	9.3	16.1	19.9	27.2	33.0
자산상각비	3.8	3.7	7.5	19.6	12.3
기타비현금성손익	4.7	2.7	7.7	(14.3)	(7.3)
운전자본증감	(22.2)	15.2	(4.9)	(2.0)	(0.1)
매출채권감소(증가)	(5.6)	(0.1)	(4.3)	(1.3)	(0.1)
재고자산감소(증가)	(4.9)	3.0	(2.2)	(9.5)	(0.2)
매입채무증가(감소)	1.9	(0.0)	1.0	5.6	0.2
기타	(13.6)	12.3	0.5	3.2	0.1
투자현금	0.5	(41.3)	(101.1)	30.1	(1.2)
단기투자자산감소	1.7	(37.3)	(17.9)	(19.9)	(1.2)
장기투자증권감소	0.0	0.0	(79.8)	0.3	0.4
설비투자	(2.0)	(1.9)	(4.2)	(0.3)	0.0
유형자산처분	0.0	0.0	0.0	0.0	0.0
무형자산처분	(0.1)	(0.1)	(0.0)	(0.0)	(0.0)
재무현금	27.9	(3.4)	104.8	(54.3)	(6.6)
차입금증가	30.4	(0.8)	111.6	(54.1)	0.0
자본증가	(2.6)	(2.6)	(7.4)	(6.6)	(6.6)
배당금지급	2.6	2.6	3.4	6.6	6.6
현금 증감	19.2	(10.8)	30.8	(0.2)	35.6
기초현금	20.7	39.9	29.1	59.9	59.6
기말현금	39.9	29.1	59.9	59.6	95.2
Gross Cash flow	17.8	22.5	40.3	38.0	43.4
Gross Investment	23.4	(11.2)	88.1	(48.0)	(0.0)
Free Cash Flow	(5.5)	33.7	(47.8)	86.0	43.4

자료: 유진투자증권

손익계산서

(단위:십억원)	2022A	2023A	2024A	2025F	2026F
매출액	155.6	165.4	384.3	476.0	488.2
증가율(%)	20.2	6.3	132.4	23.9	2.6
매출원가	108.3	113.4	285.9	344.7	351.9
매출총이익	47.3	52.0	98.5	131.3	136.3
판매 및 일반관리비	31.1	31.4	66.1	91.3	91.5
기타영업손익	0.0	0.0	0.0	0.0	0.0
영업이익	16.2	20.6	32.4	40.0	44.8
증가율(%)	(3.7)	27.7	57.0	23.5	12.0
EBITDA	19.9	24.3	39.9	59.6	57.1
증가율(%)	1.7	22.1	64.0	49.3	(4.1)
영업외손익	(4.2)	(0.6)	(6.0)	(4.8)	(3.0)
이자수익	0.5	1.3	3.3	3.4	3.0
이자비용	1.7	3.2	9.0	8.6	7.5
지분법손익	0.6	1.1	0.4	0.7	0.7
기타영업외손익	(3.6)	0.2	(0.6)	(0.3)	0.8
세전순이익	12.0	20.1	26.4	35.2	41.8
증가율(%)	(14.7)	67.4	31.4	33.4	18.8
법인세비용	2.6	4.0	6.5	8.0	8.8
당기순이익	9.3	16.1	19.9	27.2	33.0
증가율(%)	(13.8)	72.3	23.6	36.6	21.3
지배주주지분	9.1	15.5	19.6	26.0	31.4
증가율(%)	(16.0)	70.2	26.1	32.4	21.1
비지배지분	0.2	0.6	0.3	1.2	1.6
EPS(원)	267	455	573	784	950
증가율(%)	(16.0)	70.2	26.1	36.8	21.1
수정EPS(원)	267	455	573	784	950
증가율(%)	(16.0)	70.2	26.1	36.8	21.1

주요투자지표

	2022A	2023A	2024A	2025F	2026F
주당지표(원)					
EPS	267	455	573	784	950
BPS	1,461	1,836	2,456	2,804	3,554
DPS	75	100	0	200	200
밸류에이션(배, %)					
PER	15.1	8.0	9.1	7.2	5.9
PBR	2.8	2.0	2.1	2.0	1.6
EV/EBITDA	9.0	5.6	6.6	4.2	3.8
배당수익률	1.9	2.8	n/a	3.6	3.6
PCR	7.7	5.5	4.4	4.9	4.3
수익성(%)					
영업이익률	10.4	12.5	8.4	8.4	9.2
EBITDA이익률	12.8	14.7	10.4	12.5	11.7
순이익률	6.0	9.7	5.2	5.7	6.8
ROE	19.7	27.6	26.7	29.4	29.9
ROIC	16.3	20.9	20.2	19.0	23.7
안정성(배, %)					
순차입금/자기자본	77.2	18.9	100.5	67.0	23.4
유동비율	126.2	166.3	171.4	150.5	177.9
이자보상배율	9.4	6.4	3.6	4.6	6.0
활동성(회)					
총자산회전율	1.1	1.0	1.4	1.4	1.4
매출채권회전율	6.0	5.8	12.1	11.0	10.9
재고자산회전율	5.9	6.0	9.7	8.2	7.7
매입채무회전율	11.0	10.7	13.1	10.0	9.5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8%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이상 ~ +15%미만	2%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미만	0%

(2025.06.30 기준)

